

## 배민수의 삶과 사상, 그의 유지 계승

최재건 (백석대학교, 전 교수, 교회사)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배민수의 삶과 사상과 그의 유지가 어떻게 계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 특히 농촌의 발전에 한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민수는 하나님을 사랑한 성직자였고,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로 농촌을 사랑하며 노동을 사랑하였다. 일제하에서 숭실학교 시절 독립운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옥되었다. 그의 농촌사랑은 한국전쟁 후에도 계속되었다. 농촌 계몽을 위해 수많은 강연과 '농민생활' '새농민'이란 잡지를 간행하고 '삼애농민학교'도 세웠다. 그래서 삼애사상이 되었다. 그의 사후에는 유족이 그의 유산을 연세대에 기증함으로써 그의 뜻을 이어가게 하였다.

연세대 측은 초기에는 기증요건의 이행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그 후 예장 총회 측과 더불어 잘 타협하여 석사와 박사과정에 삼애정신의 계승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다원농촌목회신학 과정과 Global Institute of Theology를 통해 국내외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념강좌와 기념교회의 건립을 통해 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삼애캠퍼스를 그의 유지를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하여 그의 유지를 잘 계승하는 것이다.

**주제어:** 배민수, 독립운동, 농촌운동, 삼애농업기술학원, 삼애정신, 숭실

## I. 서론

배민수는 독립운동가요 농촌운동가였다. 장로교 목사로서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의 ‘삼애정신’을 내세우며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후에는 가족의 결단에 따라 그의 유산이 그의 모교가 아닌 연세대학교에 증여되었다. 이는 연세대가 반드시 유지(遺志)를 유지(維持)해줄 것이라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유지가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이 반드시 유지되기를 바랐던 것인가? 그것을 알려면 그의 행적과 사상을 알아야 하고, 그의 독립운동과 농촌운동의 신앙적 배경 및 역사적 의의를 알아야 한다.

배민수 목사의 행적과 업적은 15회 가량 열린 배민수 목사 기념강좌와 다원 농촌 목회자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것들과 기타 여러 논저에서 이미 많이 드러나고 평가되었다. 그 결실로 배민수 자서전과 자료집과 연구서가 발행되었다. 그의 자서전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sup>2)</sup>이 예수교장로회 농어촌부와(1993)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2002)에서 출간되었고, 그것의 한국어 번역본인 『배민수자서전』이 출판되었다.<sup>1)</sup> 또한 그가 자신의 농촌운동과 신앙과 사상을 밝힌 『그 나라와 한국농촌』이 있고,<sup>2)</sup> 미발표된 글들을 포함하여 방기중이 편찬한 자료집 『福音主義와 基督教農村運動』이 있다.<sup>3)</sup> 방기중의 『裵敏洙의 農村運動과 基督教思想』은 그의 농촌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서이다.<sup>4)</sup> 이 외에도 여러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먼저 그의 삶과 사상을 살펴본

1) 박노원 역, 『배민수자서전』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2) 배민수, 『그 나라와 한국농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종교교육부, 1958).

3) 方基中, 『福音主義와 基督教農村運動』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4) 方基中, 『裵敏洙의 農村運動과 基督教思想』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후, 배민수 자신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해서 전 유산을 그의 모교가 아닌 연세대학교에 기증하게 되었는지는 이해하고자 한다. 특별히 그의 유지가 어떻게 계승되고 실천되었는지를 주목하여, 반성할 점과 향후에 유념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추구하고자 한다.

## II. 배민수의 삶

### 1. 성장 과정과 신앙·민족의식 형성

배민수(裴敏洙, 1896-1968)는 1896년 1월 8일, 충청북도 청주 북문로에서 부친 경주 배씨 배창근(裴昌根, 1867-1909)과 모친 장희운(張喜云, 1867-1945)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한말에 청주감영 진위대 육군 보병부교였다. 일제에 의해 한국 군대가 해산되자 배창근도 의병운동에 투신하여 1908년 8월, 일본인 경찰 2명을 사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천안 감옥을 거쳐 서울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되었다가 대심원 원심이 확정되어 1909년 8월에 처형당하였다.<sup>5)</sup>

배민수는 아버지로부터 민족의식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부친의 삶이 자긍심을 심어주어 한평생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원초적 생각이 애국의 열정을 낳았고, 기독교 사상과 합쳐져서 일본의 식민지주의에 항거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사명을 갖게 하였다.<sup>6)</sup> 배창근 부자의 기독교 개종은 선교사 밀

5) 方基中, 『裴敏洙의 農村 運動과 基督教思想』, 29; 公州地方裁判所, 刑事判決原本, 1908.11.9.; 京城控訴院刑事部, 判決原本綴, 1909. 5. 20.; 大審院, 刑事判決原本, 1909. 6. 7.; 이 문서들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으나 朱明植, 「裴敏洙의 民族意識形成과 民族運動 變化研究」(延世大學校 聯合神學大學院 碩士論文, 2003). 104-122에 사본도 전제되어 있다.

러(F. S. Miller)를<sup>7)</sup> 통해 이루어졌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에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길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sup>8)</sup>

배민수는 미국 선교사가 경영하는 청남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17세 때 초등학교를 마치고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진학하였다. 평양은 선교사들이 설립한 숭실학교와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를 기반으로 기독교와 연관된 자본가와 지식인들이 사회운동 세력을 형성하여 문명개화운동, 자강주의 신문화 운동, 실력양성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한곳이었다.<sup>9)</sup> 숭실학교에서 배민수는 모우리(Eli M. Mowry)<sup>10)</sup> 선교사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그는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교우관계도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으로서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라는 조건 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한정했다. 그가 기독교인으로 조건을 정했던 것은 자유와 희생의 정신은 오직 예수께로 부터만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었고, 민족애를 내세웠던 것은 애국심이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sup>11)</sup> 숭실에서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도 만나 1913년 여름에 무명지를 베어 혈서로써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맹세도하였다.<sup>12)</sup>

- 
- 6) 배영, 「아버지의 유산: 배민수 목사의 생애와 사상」, 제7회 배민수 기념강좌, 14-15.  
 7) 한국명은 閔老雅(1866-1937), 피츠버그 대학과 유니온 신학교 졸업 후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연동교회와 경신학교의 초석을 놓았고, 후에 충청도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많은 논저도 남겼다.  
 8) Pai Minso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imeograph), 41.  
 9) 方基中, 『裴敏洙의 農村 運動과 基督教思想』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40.  
 10) 한국명은 牟義理(1880-1970).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 교회음악의 아버지로 불린다. 장대현교회에 최초로 성가대를 만들고 숭실학교에 밴드부와 합창단을 만들었다. 3.1운동 때 주도한 학생을 은익시킨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김소하게 살며 생활비를 쪼개어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11)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81-82.  
 12)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93.

이 무렵에 배민수는 만주의 무장투쟁, 독립전쟁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 기독교 신앙인이라도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공의롭고 정당한 의미에서, 민족의 독립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는 폭력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였다.<sup>13)</sup> 평양의 민족운동 노선인 안창호의 무실역행(務實力行), 즉 실력양성 노선과는 다른, 의병운동의 비타협적 항일의식과 투쟁 방식에 공감하면서, 무장투쟁을 통한 항일 운동방식을 그의 독립노선으로 성장시켜갔다.<sup>14)</sup>

## 2. 독립운동과 투옥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의 억압과 수탈 하에서 반일운동이 대동 되었다. 안창호는 서북지역 기독교 세력과 연계하여 반일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新民會)를 결성하였다. 배민수는 1915년에는 하와이에서 돌아온 장일환을 만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다. 장일환은 배민수에게 자신이 하와이에서 독립군을 통합한 박용만<sup>15)</sup>과 노백린<sup>16)</sup>이 이끄는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소속임을 밝히고 미주의 독립운동 상황을 전해 주었다. 그해 가을에 마침내 친구들을 중심으로 비밀조직인 ‘대한인국민회 조선지부’가 결성되었다. 회원은 대부분 기독교인들로 장일환이 회장이 되었고, 배민수는 서기와 통신

13) 裴敏洙, 『그 나라와 韓國農村』(서울:大韓예수교 長老會 宗教教育部, 1958), 144.;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117

14) 方基中, 『裴敏洙의 農村 運動과 基督教思想』, 52.

15) 朴容萬(1881-1928): 독립운동가, 언론인. 1904 미국 헤이스팅스대학졸업. 1914 하와이에서 대조선국민군단 창설. 1919 길림에서 대한 독립의군부 창설에 관여. 1919 대조선 독립단 하와이 지부 창설.

16) 노백린(1875-1926)은 미국, 중국, 소련에서 독립운동. 상해의 임시정부에서 군무총장, 국무총리 역임. 연세대학교 출판부 번역본에서는 노백린으로 두 번 오기되어 있다. 『배민수 자서전』, 86.

부장을 겸하였다.<sup>17)</sup>

배민수는 1918년 1월 20일 토요일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 전에 평양에서 장일환, 조옥조, 서광조가 만주에서 온 백세빈을 한 중국 식당에서 만나 국내외의 지하운동을 상의하던 중에 그들을 미행하고 대화를 엿들은 일본형사 나카무라<sup>18)</sup>와 조선인 김태석<sup>19)</sup>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심문 과정에서 고문을 못 이긴 백세빈이 모든 것을 자백함으로써 배민수까지 붙들린 것이었다.<sup>20)</sup> 장일환은 심한 고문에 굴하지 않았으나 정신장애를 일으켜 석방된 후에 순국하였다. 배민수는 징역1년의 선고를 받고 마지막 법정진술에서 조선인으로서 당연하게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며 구형의 부당성을 당당하게 피력하였다.<sup>21)</sup>

배민수는 일년여 수감 생활 후, 1919년 2월 8일에 석방되어 함경도 성진으로 이사한 가족을 찾아 그곳에 갔다. 그가 출옥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서울에서 3월 1일의 독립운동 발발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는 성진교회의 강학린 목사와 상의한 후, 김수영, 목정순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3월 10일 오후 5시에 그리어슨 (Robert Grierson)<sup>22)</sup>이 설립한 제동병원 앞에서 5,6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 시위를 하였다. 시위는 이튿날에도 계속되었다. 그리어슨은 일경이 아침부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까지 닥치는 대로 도끼와 총을 휘두르며 쏘는 광경을 목도하였다.<sup>23)</sup> 3명이 사살되었고,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그는 그

---

17)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86.

18) 中村는 평양의 악명 높은 일본 수색대 총두목. 형사대장으로 한국말이 유창하고 변장술도 뛰어났다.

19) 대표적 한인 첩자. 그의 입신영달을 위해 무고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그와 나카무라에 의해 비명횡사하였다.

20)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98-100.

21)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105.

22) 한국명은 具禮善(1868-1965)은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성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제동병원 설립 및 영생학교를 설립하였다.

날 밤 출감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3년을 구형받았으나, 평화롭고 정당방위적인 시위였다고 주장하여 선고 공판에서 1년 반으로 줄어들었다.<sup>24)</sup>

1920년 7월 10일에 함흥 감옥에서 출소한 그는 1922년 12월, 서울 체류 중에 또 다시 체포되었다. 만주에서 일어난 폭탄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의심을 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 향후의 항일 투쟁 노선을 정하는 문제가 그에게 큰 과제로 다가왔다. 배민수는 항일 운동 초기에는 “말씀의 생활화”를 비타협적, 전투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현장에서 표출하였다.<sup>25)</sup>

### 3. 농촌운동과 복음주의 항일노선 형성

배민수는 1923년 상해와 남경에 가서 4개월을 보냈다.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에 이동휘와 함께 온 시베리아 대표들은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유럽, 미국, 중국에서 온 대표들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이념투쟁에 부심하는 것을 본 그는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며 독립을 달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긴 싸움을 계획하게 되었다.<sup>26)</sup> 실력을 쌓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장차 미국으로 유학 갈 것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송실학교 당국에 영어과 개설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자격 미달인 경제학 교수를 자진 사직하게 만들기도 하였다.<sup>27)</sup> 교육을 통한 실력향상이 독립을 이룰 한 밑바탕이라고 본 것이었다.

23) Robert Grierson, Episode on a Long Long Trail (Mimeograph), 54.

24)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147.

25) 方基中, 「일제하 裴敏洙의 基督教 農村運動論-長老教 農村運動의 政治 思想的 接近-, 『東方學志』99호 1998. 196.

26)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156.

27)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222-223.

당시 사회의 또 다른 사상적 동향은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이었다. 배민수는 빈곤문제에도 관심이 깊었지만, 이런 운동을 지켜보면서 기독교 복음주의와 실력양성운동에 대해 오히려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sup>28)</sup> 그렇게 된 주요 계기의 하나는 송실전문 재학 중에 조만식을 만난 것이었다. 고당 조만식(曹晩植)은 직접적인 무력 정치투쟁보다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 실력양성을 앞선 길로 인정하였다. 조만식과의 만남은 그가 사상만 아니라 운동의 성격까지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9)</sup> 그는 과거의 독립운동 보다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독립운동의 새 청사진은 생활의 개선, 의식개조, 영농개선을 통한 ‘농촌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만식을 통해 비타협적인 민족의식을 견지하면서도 간디의 무저항주의의 경우처럼 기독교의 사회복음주의 운동을 펴는 것이 적극적인 독립운동이 된다고 확신하고 농촌운동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현실, 빈부문제를 극복하여 기독교 이상을 실현하려 하였다.<sup>30)</sup> 그가 선교사들과 국내 및 미국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하고 1931년에 도미하여 유학한 곳은 시카고의 장로교신학교, 곧 오늘날의 매코믹 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였다.<sup>31)</sup>

28) 方基中, 「일제하 裒敏洙의 基督教 農村運動論」, 198-199.

29)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224.

30) 方基中, 「일제하 裒敏洙의 基督教 農村運動論」, 200.

31) 이 학교는 1829년 인디애나 주 Hanover에서 설립되었다. 1840년 The Seminary of the Northwest로 개명되었고, 당시 인디애나의 최대도시인 New Albany로 이주하였다. 1859년 Chicago가 팽창하자 사업가요 장로교 평신도인 Cyrus McCormick의 지원으로 Chicago로 이주했고, 1884년에는 교명도 그의 이름을 따서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로 바뀌었다. 1932년에는 1829년에 설립된 Lane Theological Seminary와 합병하여 이름을 장로교 신학교로 고쳤다가 인근에 있는 Chicago Theological Seminary와의 혼동을 피해 다시 매코믹 신학교로 환원하였다. 이 학교에서 배민수의 목회를 기리는 배민수기념장학금이 년 \$13,000씩 M.Div. 학생 1명에게 주어지고 있다.

#### 4. 미국 망명과 이승만의 외교노선 합류

1938년 7월 미국에 도착한 그는 매코믹 신학교의 동창인 커틀러(Ken Cutler) 목사의 배려로 1938년부터 1941년까지 3년간 28개 주에 있는 440여 개 교회를 순회하며 1,300여 회에 걸쳐 약 9만여 명의 청중에게 설교와 강연을 하였다.<sup>32)</sup> 그는 이때 받은 사례금으로 “한국선한사마리아인회”(The Good Samaritan Project in Korea)라는 후원회를 조직하고 미국인들에게 한국 기독교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였다.<sup>33)</sup> 그러는 한편 1941년 9월부터 1943년 5월까지 프린스턴 대학과 신학교에서 국가의 독립과 건설 문제 및 기독교 사회복음주의의 지상천국 실현 문제 등을 당시의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숙고하기 시작하였다.<sup>34)</sup> 그의 관심은 지상천국의 건설과 사회복음에 관한 신학적인 성찰, 한국문제 해결에 소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등의 정치적인 문제에 쏠려있었다.

그의 망명 생활은 그가 지닌 민주주의,<sup>35)</sup> 자유주의, 빈민구제사상, 특히 공산주의는 전체주의나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sup>36)</sup> 그와 동시에 그의 염원인 조국의 독립과 기독교 왕국의 건설을 가장 크게 도와줄 곳은 미국이라고 여겼다. 기독교 중심의 새 나라 건설을 실현할 지도자에 가장 근접한 인물은 반소(反蘇) 반공의 국가 건설 노선을 확고히 한 이승만이라고 여겼다. 존경하던 안창호는 타계했고, 그를 대신할 인물로 여길 자는 교회세력을 이미 확보해둔 이승만밖에 없었다.

32) Pai Minso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372.

33) 배민수의 미주 활동에 관해서는 최재건. ‘배민수 목사의 미국에서의 활동’. 『신학논단』. 제51집. 2008. 3. 111-138을 참조.

34) 方基中, 『裨民洙의 農村運動과 基督教思想』(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198.

35) 方基中, 『裨敏洙의 農村運動과 基督教思想』. 204.

36) 方基中, 『裨敏洙의 農村運動과 基督教思想』. 391-392.

미국에서 자신의 기반이 거의 없었던 점도 이승만계와 합류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sup>37)</sup> 또 하나의 사유는 그가 1941년부터 맨하탄 감리교회에 출석하다 1945년 초에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다는 점이 었다.<sup>38)</sup> 이 교회는 이승만 박사 등이 주축이 되어 1920년에 세운교회였다. 배민수는 목회기간을 한 해도 채우지 못하고,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 을 돕기 위해 윤응팔 목사에게 직분을 넘기고 교회를 사임하였다.

배민수는 해방 후 미군정청의 고문격인 통역관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맥아더 사령부에서 임명된 수석통역관이었다. 그는 해방정국이 좌파 와 우파와 중간파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할 때 철저한 우파 편에서 활 약하였고, 좌파세력이 강한 김제와 남원지역에서 좌익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섰다.<sup>39)</sup> 1946년 9월에 서울 노동부에서 일하는 쇼(L. A. Shaw) 대 령의 통역관이 된 후에도 반공 활동은 변치 않았다. 10월의 대구폭동, 여 순반란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공산주의를 기독교에 많은 피해를 입힌 가 장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았다.<sup>40)</sup>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그는 주한 미군 철수령에 의해 1948년 12 월 18일에 서울을 떠나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1월에 다시 귀국할 때까 지 미국에서 체류하였다. 그는 한국에 설립된 ‘주한 경제협조처(EAC)’나 한국정부에서 더 일할 수도 있었으나 좌익의 암살위협 같은 신변안전 문 제, 자녀교육, 목회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 등으로 인해 도미를 결심 하였다.<sup>41)</sup> 그의 친우였고 후에 대구폭동의 주역이 된 최문식목사를 통 해 들은 정보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던 그는<sup>42)</sup> 소련이

37) 方基中, 『裋敏洙의 農村 運動과 基督教思想』, 203

38) 뉴욕한인교회역사편찬위원회, 『강변에 앉아서 울었노라-뉴욕 한인교회 70년사』(서울: 깊은샘, 1992), 246-249.

39) Pai Minso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405-413.

40) Pai Minso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421-423.

41) Pai Minso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445.

세계제패의 야욕을 품은 것과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승리를 확신하며 자유와 주님을 사랑하는 미국인들이 그 임무를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언론에 홍보도 하였다.<sup>43)</sup>

### III. 배민수의 삼애사상

배민수의 사상의 구체적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농촌을 사랑하자, 노동을 사랑하자고 하는 애신(愛神), 애농(愛農), 애로(愛勞)의 삼애사상(三愛思想)으로 나타났다.<sup>44)</sup> 하나님 사랑은 근본정신이었고 농촌사랑은 실천의 장이었으며 노동사랑은 그 방법이였다. 따라서 그의 애로정신은 논급을 극대화하고 애신, 애농의 삶을 살펴보려고 한다.

#### 1. 하나님 사랑

배민수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실천방법이라 확신하고 이 바탕 위에 나아갈 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분이 명하신 도리에 순복하고 실천하여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뜻하였다. 그는 그 도리를 따라 사람을 사랑할 때 활로가 열린 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실천방법이라

42) Pai Minso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419-420

43) 박노원 역, 『배민수자서전』, 349-350: “Korea will be Free! Seoul Pastor Voices Confidence Here,” *Dyuluth News-Tribune*, July, 28th, 1950; “Korean Cleric will Speak Here Sunday,” *St. Paul Dispatch*, August 19th, 1950; “Korean Minister Calls Homeland ‘Laboratory,’” *Rochester Times -Union* Jan.23th,1951; “Pai says Inevitable,” *Idaho Daily State*, July 28th, 1951.

44) 方基中, 『襄敏洙의 農村 運動과 基督教思想』, 301-303

확신하고 이 바탕 위에 나아갈 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분이 명하신 도리에 순복하고 실천하여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뜻하였다. 그는 그 도리를 따라 사람을 사랑할 때 활로가 열린 된다고 보았다.

배민수(裴敏洙)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바탕을 이룬 것은 기독교와의 만남이었다. 그가 교회와 기독교학교 교육을 통해 깨달은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과 자유와 평등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반상과 빈부의 차별 같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터득하였다. 그는 민족차별을 겪고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나라를 찾는 일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내선일체,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神社參拜)가 강요되었을 때,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확고하게 반대하였다.<sup>45)</sup> 해방 후에는 미군정 통역관으로서 활동하는 한편으로 이북 월남민들을 위해 성도교회를 세워 목회 활동을 하였다. 이 교회는 단기간에 1,5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급성장하였다. 실향민에게 영적인 쉼을 주고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이들을 도우려고 애썼기 때문이었다.

그의 신학사상은 세 단계에 걸쳐 확립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장독립운동을 시도한 것이었다.<sup>46)</sup> 둘째 단계는 개량적인 민족운동으로 전향한 것이었다. 신학교는 물론 당시의 교회도 실천적인 생활이 없이 영적인 면만 추구하고 있었다.<sup>47)</sup> 셋째 단계가 바로 이 미국 유학생생활 통해

45) Pai Minso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360-361.

46) 배민수는 무장독립운동의 이념을 박容萬에게서 받았고, 일제의 강점을 원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민족해방에 대한 열정과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있었다.

47) Pai Minso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315.

신학사상을 형성한 것이었다. 그는 신앙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 가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물질적인 생활의 영성화를 배웠다.<sup>48)</sup>

1958년에 간행된 『그 나라와 한국농촌』은 배민수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기본전제 아래 현세적인 천국의 의미와 기독교 이념의 역사성과 현실성, 말세와 현세의 지상천국 건설의 시급성을 논하면서 기독교 농촌운동이 천국의 시민운동이 되는 신학적 원리와 실천적 의미를 밝히려 하였다. 그의 지상천국론은 광신주의나 신비주의 및 공산주의 세계관과는 다른 보편적이고 사회적 실천성을 갖는 신학적인 논거로서 제시되었다. 그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십자가에서 무고한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예수의 희생정신을 본받으면 개인적인 욕망은 물론 인종, 국경, 계급, 혈연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았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란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듯이 천국은 비천한 곳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가질 자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조금씩 채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배민수는 천국운동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 농촌운동을 전개 하면서, 우선적으로 농민들의 영혼이 잘되는 농촌운동을 펼쳤다. 그가 강조한 자주, 평등, 상호부조의 기독교 농촌운동의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확신한 그는 십자가의 정신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십자가 정신은 애국정신의 바탕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실현운동의 배경이 되었으며, 삼애정신의 기초가 되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여 자기를 희

48) Pai Mins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315-319.

생하고 남을 살리는 정신, 둘째로 자기를 낮추고 남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신, 셋째로 참을 숭상하고 신용을 회복하며 정직한 언행과 생활을 하는 정신이었다.

## 2. 농촌사랑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농촌을 사랑하자고 주장하였다. 농촌의 흙을 사랑하고, 전답을 사랑하고, 산과 들의 자연과 경치를 사랑하고, 기후와 풍토를 사랑하자고 하였다. 농촌을 사랑하면 농민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농민이 잘 살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온 백성이 다 잘살게 될 것이었다. 농민을 일깨우고 교육하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상의 길이라고 믿었다.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농촌을 사랑하자고 주장하였다. 농촌의 흙을 사랑하고, 전답을 사랑하고, 산과 들의 자연과 경치를 사랑하고, 기후와 풍토를 사랑하자고 하였다. 농촌을 사랑하면 농민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농민이 잘 살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온 백성이 다 잘살게 될 것이었다. 농민을 일깨우고 교육하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상의 길이라고 믿었다.

### 1) 예장 총회의 농촌부와 농촌계몽운동

농촌문제는 1920년대 이후에 세계 기독교계의 관심사가 되었고, 1928년 예루살렘 세계선교대회에서도 농촌문제가 주요 주제가 되었다. 배민수는 맥코믹에서 “영적 신앙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하나님 나라’ 사상을 확립하게 되었다.”<sup>49)</sup> 다소 폐쇄적이었던 이전의 민족주의적인 생

49) 金明九, 「日帝下 長老教 農村運動-裒敏洙의 活動을 中心으로-」, 延世大學校 聯合神學大學院 碩士論文, 1997, 111.

각들이 승화되었고, 그의 시야는 넓어졌으며, 민족의식도 기독교의 보편주의와 결합하여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sup>50)</sup> 1932년에는 “기독인 협력친우회(Cooperative Christian Fellowship)”란 학생단체에 가입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단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을 모토로 삼고 (1) 신조 일치, (2) 인종 간 형제화, (3) 사회경제 부흥을 실천과제로 삼고 있었다. 그는 농촌운동에 대한 꿈을 더 구체화시키고, 나아가 민족, 인종, 국가를 뛰어넘는 기독교의 사해동포주의로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

1933년에 귀국한 배민수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농촌부<sup>51)</sup>에 정인과의 협조로 상설총부가 되어 농촌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농촌운동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기독교농촌연구회”(The Christian Rural Research Association)를 재조직하고 활성화시켰다. 이 단체는 그가 도미 전에 유재기 목사 등과 조직했던 것이었다. 이 일에 조만식 선생을 비롯하여 박학전, 김성원, 정인파, 매륜 선교사, 송실대학의 농업경제학자인 이훈구 등 농촌문제 최고의 권위자들이 동조하였다. 이 단체의 활동 목적은 (1) 조선의 전반적인 농촌문제 연구, (2) 기독교주의 농촌사업 실현 (3) 회원양성과 실제 사업투신이었다. 총회의 농촌부는 그를 중심으로 ‘농민생활’이란 잡지 외에 ‘농촌통신’이란 기관지까지 발행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쳤다.

1933년 11월 1일에 배민수를 비롯한 일련의 인물들은 “총회 농촌부 상설기관 설치에 제하야”라는 고시문을 발표하며 의욕에 찬 이상적인 ‘예수촌 건설’을 주창하였다. 농촌운동의 목표는 예수의 정신, 곧 기독교

50) 노치준, 「배민수 목사와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 『神學理解』 11집, 1993년. 329.

51)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 농촌부가 설립된 것은 1928년 17회 총회 때였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17회 회록』, 1928, 41.) 당시에 세계 기독교계가 농촌선교에 관심을 기울였다.

의로 돌아가 조선 백성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하며 예수의 사명과 행적을 농촌에 실현하여 영적생활과 물질생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예수 촌을 건설함으로써 이 땅에 기독교 왕국을 세우고 영원한 천국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예수 촌 건설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준적 물질생활”이었다. 현실사회 소유 관계의 엄청난 불평등구조의 해결책 제시가 바로 “복음주의 기독교정신”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예수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조직적 협동생활’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농촌 조직화’를 이루는 것이 그 실천원리였다. 이 예수 촌 건설을 위한 기초 사업은 4가지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1) 협동조합운동 (2) 농촌지도자 양성 (3) 농촌수양회 활동 (4) 이론 선전운동 등이었다.

그가 구상한 예수촌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건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정신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어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내며 육적으로 배고픔이 없는 복락을 누리는 모범촌이었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개인주의의 소유욕에서 벗어나 ‘표준적인 물질생활’과 ‘정신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상부상조적인 경제공동체와 신앙공동체였다. 그리스도의 박애와 희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복음주의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의거하여 토지 소유관계를 실현하는 자립적인 기독교 농촌공동체였고, 그 조직 원리와 경제이념은 기독교 협동조합주의였다. 강조점은 농민들의 개별적인 물질적 풍요 추구가 아니라 농촌 마을들이 공동체적인 협동생활을 이룩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 우선 생산자와 직거래로 중간 상인의 모리행위를 철폐하기 위해 조합이 직접 분배정의를 실현할 협동조합 같은 기구가 필요하고 그 바탕은 기독교 정신이어야 하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의 독창적인 사상이라기보다 이미 알려진 덴마크의 농촌운동가인 그룬트비히의,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1888-1960)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가 제시한 기독교공동체 구성안은 100여 호의 단위로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거기에 각 농가가 5-6천 평의 토지를 자작하고, 생산·소비·신용조합을 조직하여 경제생활을 효율적으로 하고, 학교, 교회, 이발소 등을 갖추어 이상촌을 만들자는 구상이었다. 그는 협동조합의 구성 다음으로 농촌지도자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그 부락을 지도할 인물은 반드시 그 부락 출신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야 지역의 사정과 사람들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성공을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전국에 사만 오천여 마을이 있으므로 구만 명의 남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각도마다 강습소를 세우고 매회 100명을 일 개월씩 연 10회 강습하면 4년 만에 지도자 양성이 가능하다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여름 동안 40일간 연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34년 6월말부터 8월 1일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이란 주제로 평양의 숭실전문학교에서 개최된 연수회에서 43명의 지도자가 처음 배출되었다. 그 후 배민수는 농한기인 11월 중순경에 5일 동안 집중적인 수련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모일 때마다 작게는 100여 명이, 많게는 4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그는 1936년 기독교보에 “기독교 농촌운동의 지도원리”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당시 사회가 경제문제로 공산주의에 빠져드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나 농촌의 피해를 초래한 한 요인이 이윤추구와 분배모순 등 자본주의 체제의 맹점에 있다고 보았고, 특히 일제가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맹점을 비판하면서 기독교의 박애정신이 이를 보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한층 넓혀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이대위 목사를 비롯한 당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빈민들의 모습을 보고 전국적으로 빈부의 차별이 너무 심한 사실

에 고뇌하게 되었다. 평양에서 학생이었을 때 기생집으로 팔려간 소녀를 구하려고 하였다가 빈곤과 무지의 문제에 도전을 받았다.

그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유학 때 이 일을 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모금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sup>52)</sup> 1931년에 그를 도와 준 그린리로프 여사가 찾아와서 \$4,000을 회사하면서 즉시 한국에 돌아가서 활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통고하고 회사금을 당시 한국 교계의 거물인 X목사에게 전하였다.<sup>53)</sup> 배민수가 귀국했을 때 정인과는 그를 장로회 총회 농촌부의 총무로 인준시켰다.<sup>54)</sup> 그는 농촌문제에 대한 사명감과 향후 4년간 그 부인이 지급한 회사금으로 인해 총무로 활동하였다. 모호한 회사금 관리 속에서도 그녀는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녀 다음에는 커틀러(J. Kenneth Cutler) 목사를 통해 선교비를 보내주었다.<sup>55)</sup>

농촌부 총무의 일은 1937년에 농촌부가 폐지되면서 막을 내렸다. 당시 농촌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내세우며 농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농사법의 교육을 반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배민수는 농촌부 총무로서 세 가지 일을 이루었다. 첫째는 고등농사 학원 중심의 농촌지도자 양성(Rural Leaders Training)이었다. 각 지역 노회에서 추천한 청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3년간 49명의 농촌지도자를 양성하였다. 둘째는 농촌수양회를 통한 성인교육(Rural Adults Education)이었다. 전국의 농촌을 순회하며 노회와 교회 중심으로 농사지도, 협동조합지도, 전도활동을 수행하였다. 셋째는 각지에 있는 교회 농촌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교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경작, 공동노동,

52) Pai Mins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256.

53) Pai Mins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252. 영문본과 한글 번역본 모두 \$40,000로 기록하고 있으나 \$4,000이 맞다고 한다.

54) 『조선예수교 장로회총회 제22회회록』, 1933, 26.

55) 박노원 역, 『배민수자서전』, 263.

공동생산의 훈련을 쌓게 하였다.

그는 농촌운동으로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원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취지는 신앙과 정신자세를 확립시키는 데에 두었다.<sup>56)</sup> 전국을 순회하며 여는 농촌강습회에서 농촌사업협동위원회나 YMCA의 농촌계몽 활동에는 없는 성경과목을 둔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sup>57)</sup> 그가 펼친 농촌운동의 기본사상은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곧 신앙의 실천, 살아있는 신앙의 실현이 기본 목표였다.<sup>58)</sup> 농촌지도자들을 교육하는 목적도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는 데에 있었다.<sup>59)</sup>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신학의 실천운동이었다.<sup>60)</sup> 또 다른 농촌운동과 구별된 점은 가난한 사람들을 의식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 2) 이승만 정권 하의 농촌운동

6.25전쟁이 일어나자 1952년 11월 전쟁중의 고국으로 돌아왔다. 1954년에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를 창설하고 “농민생활”이란 월간 잡지를 간행하면서 과거 농촌운동의 불을 지펴나갔다. 그의 기독교 농촌운동은 해방 전의 “예수촌 건설”에서 현실 사회체제와 밀접한 “기독교 모범농촌 건설론”으로 바뀌었다. 농가 300호를 구(區)라는 단위로 조직한 대규

56)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259.

57)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1925-1937』(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144; Pai Minsoo, ‘The Rural Evangelistic Movement’, *Korea Mission Field*, July, 1935. 148-150; 배민수, 「복음주의와 기독교농촌운동」, 〈농촌통신〉 1, 1935년 3월 1일. 方基中(편), 『福音主義와 基督教 農村運動』(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32.

58) 민경배, 「한국장로교회 농촌사역과 배민수」, 제7회 배민수 기념강좌팸프렛, 60

59) 고등농사학교에 대한 상황, 농촌부 보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2회 총회회록』, 1933, 24.

60) 裴敏洙, 『그 나라와 韓國農村』(서울: 大韓예수교 長老會 宗教教育部, 1958), 33, 145.

모 농촌부락을 근간 단위로 하였다. 구 단위의 모범농촌은 다시 조(組)와 반(班)으로 하부조직을 갖추게 하였다. 농가 5호를 1반으로 묶고 10반을 1조로 하고 6조가 한 구가 되도록 조직하는 것이었다. 모범농촌에는 교회, 학교, 의료소, 협동조합, 이발소, 세탁소, 탁아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은 소비조합 같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하였다. 농업기술의 개발을 위해 작물, 원예, 축산 임업 등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농사의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일상생활 면에서도 식당, 화장실 같은 주거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음식, 의복의 개량, 위생 등을 상론하였다. 실천방안으로서 각 부락을 이끌어갈 기독교 농촌지도자 양성방안인 ‘중앙기독교농민학원 설립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은 1950년대 전쟁 후의 농촌사회에 대한 개선책이었으므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거리가 있다. 방기중은 체제유지용이라고 비판하였다.

배민수가 1953년 금융조합연합회(현 농협중앙회) 회장에 취임함으로써 그의 농촌운동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는 식산계 부흥사업(殖産契復興事業)을 펼쳤다. 이는 금융조합의 농촌 말단조직인 부락 식산계를 모범농촌으로 만들어 농촌을 부흥케 하고 협동조합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반강제적인 현물 저축운동을 실시하고 영농자금의 집단 융자 방식을 채택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식산계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도자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금융조합의 영농지도자와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농촌지도자들을 교육하고 농촌부락을 협동조합화 하는 식산계 부흥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새농민’이란 잡지도 간행하여 농촌계몽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였다. 신생 대한민국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농촌운동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또 전후의 농촌 현실이 너무 열악하여 농민자본을 끌어낼 수도 없었다.

### 3. 노동사랑

마지막으로 노동을 사랑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간이 내가 수고하여 남을 돕고 나의 노동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면 한국농촌이 변화되고 민족의 진로도 바르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상이었다. 기독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적만 바라지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아무 일도 안하면서 하늘만 쳐다 보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 IV. 삼애사상의 실현과 유지 계승

### 1. 삼애농업기술학원 설립

#### 1) 삼애 농업기술학원의 설립과 교육 목표

배민수는 모든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삼애정신을 따라 개인적으로 다시 농촌운동을 시작하였다. 1956년 대전에 기독교농민학원을 설립하였다. 1964년 이 학원에서 분규가 일어나자 별도로 대전 기독교여자농민학원을 설립하였다.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1967년 경기도 고양 일산의 삼애 농장에 '삼애농업기술학원' 및 '삼애 실업학교'를 설립하여 농촌지도자 양성을 시도하였다.

삼애농업기술학원은 한국의 농업과 농촌이 해체 위기에 있다는 절박감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고속도로 사업과 수출지상주의를 내세우며 산업화 되고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농촌과 농업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농업은 (1)

저수기능, 홍수의 방지, 토양보전기능, 대기기능정화 등으로 환경과 자원의 유지 보전효과를 갖고 있다. (2) 사회보장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3) 지역정책으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 (4)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5) 식료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농민만을 위해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서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지닌 것이었다.

배민수 목사는 하나님 사랑, 나라사랑, 노동사랑을 주창한 삼애정신을 기본 교육이념으로 하여, 21세기에 필요한 기독교 농어촌 자원 지도자, 지속농업(생명농업)을 위한 영농지도자의 교육,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통일한국 농촌지도자 양성,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갈 지역 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삼았다.<sup>61)</sup>

삼애농업기술학원의 농촌지도자상은 (1) 삼애정신이 투철한 신앙인으로서의 농촌지도자 (2)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닌 투철한 자주적 지도자 (3) 지속성 농업을 통해 민족과 땅과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 (4)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희생적 지도자 (5) 협동과 공동체 정신으로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가는 민주적 지도자 (6) 통일한국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 농어촌을 부흥시킬 수 있는 지도자 (7)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민주적 지도자였다.<sup>62)</sup>

## 2) 교육의 특징

기독교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배민수의 삶과 신앙과 철학인 삼애정신 위에 세워진 삼애농업개발원 교육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정신교육이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절제 있는 생활을 통한 윤리관

61) 「삼애농업개발원의 교육목표」,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서울: 한장사, 2005), 216.

62) 「삼애 농업개발원의 지도자 상」,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217.

을 확립토록 하였다. 둘째 공동체 교육이었다. 농업 자체가 공동체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에 교육자와 피교육자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치관을 재형성하고 협력하는 농촌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셋째, 생명교육이었다. 생태계마저도 죽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생명 공동체를 이룩하도록 하였다. 넷째, 농업도 의학처럼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산업으로서 산학협동 교육을 통해 유기적 성격의 농업 체제를 확립하려고 하였다.<sup>63)</sup>

## 2. 연세대학에 대한 유산 기증

배민수는 삼애농업기술학원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1968년 8월 25일, 새벽 6시 30분 소천하였다. 영락교회에서 송실대학장으로 장례식이 엄수된 후에 삼애동산에 안장되었다. 정부는 그의 업적을 기려 62년 농촌진흥유공자상, 66년 3.1독립운동 선도자상도 수상하였다. 1993년 8월 15일에 부친과 더불어 그에게 건국훈장 애국훈장이 추서되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산63-1에 있고 면적은 57,223평(현재 189.715m<sup>2</sup> -55876평)에 달하는 그의 유산은 연세대학에 기증되었다.

### 1) 기증과정

배민수의 유지를 따라 학원을 계속 유지하던 부인 최순옥(-1986, 5)은 다른 유족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자 한경직, 방지일, 강신명을 비롯한 송실 출신과 오랜 벗이요 건국대학 부총장과 학술원 회원이었던 김성원 박사와 부인 최순옥과 유족들로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유산을 기증하여 배민수의 유지를 잘 계승 할 곳을 찾게 되었다. 유산은 일산에 있던 56,000여 평의 삼애실업학교 대지였다. 배민수의 모

63) 「삼애 농업개발원 교육의 특징」,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218.

교요 서울에서 재건된 송실의 초대이사장이었던 송실대학, 배민수가 농촌부 총무를 역임했던 예장 총회, 장로회 신학대학과 연세대학교농업개발원 등이 기증의 대상이었다. 삼애 농업기술학원 재단이사회는 배민수의 유산은 최종적으로 연세대학교에 기증하기로 결의하고 연세대학교 이우주 총장에게 통보하였다. 실권자 최순옥이 연세대학교가 배민수의 유지를 가장 잘 이행 할 것이라는 판단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본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과 유지 경영하고 있는 삼애 실업(중고 등) 전수학교는 재단법인에 속한 기관 일체의 재산을 목적이 같고 뜻이 같은 가장 튼튼한 기독교 연합교육재단에 기증해야 될 단계에 이르러 ..... 여러 대상기관을 물색하던 중 귀 연세대학교 재단이 가장 신뢰가 되고 농업 개발원의 목적사업이 본 법인의 목적 사업과 가장 동일하다고 공감되며 기독교 기관으로서 정신도 같고, 우리나라의 사학 재단으로서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되어 귀 대학교에 본 재단 교육 기관 재산 일체를 상호 신뢰가운데 기증하여 목적 사업이 더욱 크게 번창하여 한국농촌 발전에 역사적 공헌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는 .....<sup>64)</sup>

이 뜻은 재단법인 삼애 농업기술학원 재단이사장 강신명 목사와 설립자 겸 상무이사 최순옥 명의로 1976년 7월 30일 연세대학교 총장에게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우주 연세대 총장은 “귀 재단이 유지·경영하고 있는 삼애실업전수학교와 그에 속한 일체의 법인재산을 본대학교에 기증하는 일에 관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그동안 신중히 검토한 결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음”과 8월 “11일에 열리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정식 회답”을 하겠다고 일차 회신하였다.<sup>65)</sup> 8월 12일에는 “본 법인과 학교는 귀 재단의 기증의사에 경의를 표

64) 「재단법인 삼애농업 기술학원 및 유지경영학교 기증 건」,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서울: 한장사, 2005), 196.

하고, 제시한 조건대로 수증하기로 결정”하였음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인 기증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총장 이우주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천환의 명의로 회신되었다.<sup>66)</sup>

## 2) 기증요건

삼애농업기술학원 측은 “재단법인 삼애농업 기술학원 및 유지경영학교 기증 건”의 공문에 기증에 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사랑, 농촌사랑, 일 사랑의 삼애정신을 살려 참된 농촌사랑, 일 사랑의 삼애정신을 살려 참된 농촌자원지도자를 배출코자 하는 목표의 동일성 확인입니다.

둘째, 배민수박사님의 기념도서관이 간단히 건립되기를 원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재단을 인수하면 어느 때고 농업개발원 도서실이 필요하게 세워지리라 생각되지만, 우선 큰 부담 없이 적절하게 속히 지어져서 간단한 배목사님의 유품(소지품)을 기념관에 정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경기도교육위원회와 1976년 9월에 짓기로 약속된 고등학교 1교실 증축은 중·고등학교를 계속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교육위원회와의 약속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John Van Voorhis와 Arthur C. Prichard, Sang Youn Whang 등 제 씨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현 고등학교 교실 옆에 Mr. Phipos Memorial Room으로 지어서 사진 찍어 보내기로 약속하고 받은 돈 2천달러는 꼭 그 이름으로 지어야 할 양심적 책임이 있으므로 그 2천달러를 받으시어 기부자와의 약속을 기쁘게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넷째, 삼애동산 남쪽에 “어느 교파의 관념적 색체에 물들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초교파 농촌교회가 세워져서 이 지역 청소년 학생들은 물론 가

65) 「삼애 제76-58호에 대한 회신」,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200.

66) 「재단법인 삼애 농업기술학원수증에 관한 일」,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202.

난한 농민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희망하였으며 약속 받고 싶습니다.  
(초교과교회 설립은 고 배민수 목사님의 생전 숙원인 것입니다.)

다섯째, 영내에 모산 고 배민수 목사님의산소와 두분 모친님의 산소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본 재단 법인의 목적사업인 삼애농업기술학원과 유지 경영하고 있는 삼애실업(중·고등)학교는 귀 연세대학의 플랜에 조건 없이 신뢰하되 목적 사업인 삼애농업기술학원의 명칭을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부속 삼애농업기술(실습)원으로 이름하여 목적사업을 살려주시고 농장 이름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러오던 그대로 삼애농장으로 불러 주시기 바라오며, 중·고등학교는 현재 1학년을 3학년 까지 졸업 할 수 있도록 무리 없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sup>67)</sup>

### 3) 기증의 수용과 이행의 상거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 이사장과 한경직 목사, 삼애농업기술학원 이사과 교장을 겸했던 김성원박사, 배민수 목사의 부인으로 삼애학원 상무이사 최순옥여사는 여러 기관과 더불어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에 기증한기로 한 후, 상무이사 최순옥은 삼애학원 실무자 정건모에게 기증 요건 6개 항목을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이것이 삼애농업기술학원 이사회와 그 후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증이 완료되었다.<sup>68)</sup>

기증요건이 상호 간에 합의된 것에는 다음의 여건이 작용하였다. (1) 양교의 설립 정신이 같았다. 연세대학은 언더우드가 1915년 처음 조선 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을 세울 때 농학과를 설치한 했던 역사적 배경을 지녔고, 기증 당시에 존재했던 연세대 농업개발원도 그

67) 「재단법인 삼애농업 기술학원 및 유지경영학교 기증 건」,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197-198.

68) 「위임장」,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204

목적사업이 삼애 농업기술학원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세대는 사학재단으로서 가장 튼튼하다고 판단되었다. (3) 연세대를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양측은 상호 신뢰하기로 하였다. (4) 목적이 같고 뜻이 같았다. (5) 목적사업을 크게 번창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되었다. (6) 결과적으로 한국농촌 발전에 역사적 공헌을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즉 연세대에 대한 유족의 유산 기증은 배민수 목사의 유지(遺志)가 잘 유지(維持)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고, 연세대의 재산 수용은 그의 정신이 연세대학 설립 정신 및 목적과 같고 학교 발전이 그 유지의 계승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 4) 예장 총회에 대한 유산 관리위임

삼애농업기술학원을 기증받은 연세대학교는 그 부지에 ‘삼애캠퍼스’를 조성하였다. 일차적으로 그곳에 1980년 12월 배민수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천문학과와 천문대 일산관측소도 세웠다. 그러나 기증의 요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삼애측은 1990년 9월 14일자로 이사회 학술원 회원인 김성원 명의로 ‘연세대학교총장님과 이사회 이사 제위분께 드리는 권면’을 관계자 26인이 연서하여 보냈다.<sup>69)</sup> 배민수의 장남이자 배민수 박사 기념사업회 고문인 유족대표 배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측과 협의하여 총회에 유산 관리를 맡기도록 의견을 모았다. 총회는 농촌부장 박노원 목사에게 대책의 전권을 위임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 1992년 8월 9일에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유족대표 배영, 총회 대표 박노원 목사, 엄태성 목사, 기증 당시 이사겸 삼애학교교장 김성원 박사, 신영호 박사, 정건모 장로, 한규덕 장로가 모여 토의하였고 연세대 측이 그간의 기증이행 조건의 부진에 관해 반성하였다.<sup>70)</sup>

69) 延世大學校總長님과 理事會 理事諸位분께 드리는 勸勉

그동안 연세대학은 1993년 5월 22일에는 배민수의 부인 최순옥 여사의 묘를 삼애동산으로 이장하였다. 1993년 9월에는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에 삼애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치된 낙농학과를 생물자연공학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삼애농업기술학원도 연세대학교 농촌개발원도 한국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로 기구 자체를 존속시킬 수 없어서 폐교되었다. 배민수의 유지를 외적으로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기증이 완료되고 17년이 되던 해에 전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 이사장 한경직, 당시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 이사 김성원, 감사 김광윤, 배민수 박사 기념사업회 고문, 유족대표 배영의 명의로 1993년 8월 12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위임장'을 발송하였다.<sup>71)</sup> 이에 따라 예장 총회의 농어촌부 총무였고 기증당시 이사였던 곽재기 목사도 동일한 내용의 위임장을 총회에 발송했다. 기증 받고 17년 동안 연세대학교는 4년 임기의 총장이 4명이나 교체되었고 “바뀔 때마다 약속이행을 진지하게 건의했으나 선명한 대답 없이 의견은 묵살되었고” 이천환 재단 이사장은 총장의 “바쁜 일정만을 제시한 채 묵살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7년이 경과한 현금에 와서는 더 이상 정중하고 신의 있는 기대가 어렵다고 판단되나 극한 충들을 피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설적이고 인격적이며 성서적인 관계로 이끌기 위해 유족 측의 의견도 수렴하여 총회에 권고와 협력을 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당시 관계이사와 감사, 고문, 관계인이 총회에 본인들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협력을 구하는 위임장에 서명”하여 보냄을 밝혔다.<sup>72)</sup>

총회의 농어촌부 총무 박노원 목사는 연세대 삼애학원 관련 현의를 78회 총회(1993년 9.16-21)에 “삼애농업기술학원 기증조건 이행 촉구에

70) 정석환, 「최순옥 여사의 생애와 사상」, 제12회 배민수 기념강좌 자료집, 80-81.

71) 「위임장」,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205.

72) 「위임장」,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204-206.

대한 제안”을 보고했다.<sup>73)</sup> 이에 대해 삼애농업기술학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하여 위원장을 김기수, 서기를 박노원으로 결정하였다. 제1차 위원회는 1993년 11월 9일에 소집되어 기증목적대로 실행 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총회장 명의로 연세대에 발송키로 하였다.<sup>74)</sup>

총회장 김기수의 명의로 1993년 11월 30일 연세대 송자 총장에게 “삼애 농업 기술학원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에서 (1) 농촌 지도자 교육을 위한 기존 삼애농업기술학원 건물을 개·보수하여 농촌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것, (2) 배민수 선교센터를 건립할 것 (3) 배민수기념교회를 건립할 것 (4) 배민수 기념 연수원(유스호텔)을 건립할 것, (5) 간호센터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4년 9월 제 79회 예장 총회는 삼애농업기술학원 대책위원회를 총회의 특별위원회로 존속하기로 허락하고<sup>75)</sup> 위원장에 정복량을 서기에 박노원을 임명하였다. 특별위원회는 1994년 11월 21일 김기수 총회장 명의로 교육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12월 7일자로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고 배민수 목사의 유지를 설명하고 연세대학교가 기증조건대로 실행하게 해 달라는 것,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독립 법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sup>76)</sup> 1996년 1월 15일에는 삼애농업기술학원 기증조건 이행을 위한 소송준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 4일에는 법적 대응기로 결의하고 대현교회 장로 이영수 변호사를 법률자문으로 선임하였다.<sup>77)</sup>

7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8회 총회 회의록』(대한예수교장로회, 1993), 88.

74) 「우봉 배민수 목사 관계 주요 일정」,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223.

7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9회 총회 회의록』(대한예수교장로회, 1994), 130.

76) 「청원서」,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223, 226-227.

77) 「우봉 배민수 목사 관계 주요 일정」,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224.

연세대의 김병수 총장은 1996년 11월 22일에 예장의 민병익 총회장에게 애초의 기증목적대로 이행하겠다는 합의안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공원용지 해제절차와 향후 시설문제를 논의하고 총회와 긴밀하게 협조해나가기로 하였다. 1996년 12월 3일에는 유가족 배영, 배순옥과 총회의 박노원, 연세대학교의 유주현, 박길준, 한준상, 남광홍이 연세대에서 모임을 갖고 기증요건의 이행과 연세대와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공동위원회 구성 안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1999년 83회 예장 총회는 총회와 연세대가 각각 3인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 3. 연세대의 유지 계승

예장 총회와 연세대 사이에 타협이 성립된 이후 연세대 측은 배민수가 이룩한 행적과 농촌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2005년 6월 7일 중앙도서관에서 기록 보존소로 이관하였다. 또한 배민수 목사 자서전 『누가 그의 왕국에 들어 갈수 있는가?』 영문판 *Who shall entered the Kingdom of Heaven?*을 공동 출간하였다. 2007년에는 중국어 판도 간행하였다.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초기에는 매년, 2001년부터는 격년으로 기념강좌를 개최하여 2018년 현재 제15회에 이르게 되었다. 기념강좌와 여러 논저들을 통해 발표된 그간의 연구에서는 그의 기독교 농촌운동이 중점적으로 취급되었다. 그의 삼애사상(三愛思想),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지는 사상은 계속 주목을 받아왔다. 1~6회까지는 기념강좌의 주관부서가 연세대 교육연구소였다. 2001년 7회부터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으로 바뀌었다. 배민수 목사의 농촌운동은 사회운동이면서 신앙운동이었기 때문에 연신원이 주관하는 것이 그의 정신을 보다 깊이 이어가게 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sup>78)</sup>

2000년에는 39,264평의 부지에 국제 규격의 축구와 럭비의 겸용 구장과 야구장이 조성되었다. 보조 경기장과 야구장에는 이동식 백네트의 부대시설도 갖추었다.<sup>79)</sup> 1980년 12월에 배민수목사 기념관을 삼애동산에 세우고 그의 유품을 기념관의 전시실에 상설 전시하기 시작한 후 주춧돌 기념사업이 재정비되었다. 기념관을 재정비하여 2층의 일부를 배민수기념전시실로 확충하고 일부는 배민수도서실로 만들었다. 또 하나의 기증요건이었던 삼애 기념예배당도 2006년에 설립되었다. 7월부터 9월까지의 교회창립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17일에 창립기념 예배도 있었다. 초교파적인 교회로 운영되었다. 삼애교회의 초대 담임목사는 박정세 교목이었다. 그 후에도 연세대 교목들이 교대로 책무를 맡았다. 교회의 주요 활동은 매주일 예배와 각종 성경공부를 비롯하여 매년 배민수 목사 추모예배를 드리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 농촌과 소외된 자와 이주노동자 돕기 등으로 배민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sup>80)</sup> 교회재정도 설립 초기에는 학교의 지원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는 자립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의 농업개발원에서는 낙농학과 등을 설치하여 배민수 목사의 농촌운동의 유지를 이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으로 학생이 급감하여 폐쇄되었다. 그 대신 그의 정신과 신앙을 이어가도록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격년으로 그의 이름을 내건 학술강좌를 개최하게 하였다. 보다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배민수 목사 기념 다원 농촌목회신학 과정을 연합신학대학원에 2001년부터 석사과정으로 개설한 것이었다. 매년 10명씩 선발하여 그의 정신과 신앙, 사상을 이어갈 인물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전원에게 장학금과 교통비까지 지급하여 면학에 힘쓰도록 뒷받침하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하여 박사

78)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50년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24.

79) “연세대학교 삼애캠퍼스”, <http://ko.wikipedia.org/>.

80) 삼애교회 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samae/>.

과정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부담하는 삼애장 학금으로 삼애정신을 보다 학문적으로 구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원자도 배민수가 글로벌 맨(Global Man)이란 점을 고려하여 내국인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국내외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통해 그의 정신이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와 세계적으로 계승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송도의 연세 캠퍼스에 Global Institute of Theology에서도 삼애정신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더한층 세계화되었다.

## V. 결 론

배민수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였으며, 한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헌신한 성직자요 애국자였다. 그는 인간은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믿음 위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농촌운동에 평생토록 헌신하였다. 배민수는 당시의 한국장로교회가 개인구원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회참여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실천적 목회자였고, 신앙을 생활화 한 신앙인이었다. 종말신앙에서 비롯된 책임의식을 지닌 목회자로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가 연결된 삶을 살았다. 한국의 농촌문제를 기독교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십자가 정신을 내세우며 변함없이 노력하였고, 사후에 가족을 통해서 유산을 기증함으로써 그의 뜻을 계속 이어가게 하였다.

그의 농촌운동 사상은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 국내외의 사조 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하면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하나님 사랑으로 확대시켰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

이란 것을 깨달아 하나님 사랑을 농촌 사랑과 노동 사랑으로 구체화하였고, 기독교적, 애국적인 사랑의 실천운동인 농촌운동에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땅에 이룩할 지상천국운동이란 신학적 뼈대를 더하였다.

일제 강점기 말에 그는 끝까지 민족혼을 지키는 얼마 안 되는 애국지사의 대열에 섰다. 한국전쟁 때는 미국생활을 포기하고 전화에 휩싸인 조국에 구호품을 들고 돌아와 농촌을 위한 금융조합장이 되어 식산(殖産)계를 만들고 농민 잡지를 발행하며 농민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자본주의를 논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지닌 동시에 금융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농가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며 개선책을 강구하는 미시적인 안목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복음주의 이념은 빈민구원과 지상천국 건설을 지향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개조를 논하여 기독교 사회주의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의식도 공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

그는 사상가라기보다 실천운동가였다. 그가 고뇌하며 해결하려 애썼던 농촌개선 문제는 산업사회화 한 오늘날의 상황에도 거의 그대로 온존해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산업화, 도시화를 거쳐 귀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것도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의 일환이 될 것이다. 그가 꿈꾼 지상천국 건설의 과제는 바로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계속 풀어가야 할 현 시대의 과제이다.

그의 사후에 가족들은 전 재산인 약 5만 6천 평에 달하는 일산의 땅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였다. 연세대 측은 초기에는 기증요건의 이행에 차질을 빚었으나, 유족의 위임을 받은 예장 총회 측과 더불어 잘 타협하고 삼애정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한국에서의 기부문화 발전과 정착에 공헌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그의 유지를 잘 이어가는 것이다.

## 참고문헌

- 『基督申報』
- 『마포삼열 박사전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3.
- 박노원 역. 『배민수 자서전』,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 배민수 · 문서철. 노트 VI. (외)
- 『조선예수교 장로회총회 제22회회록』.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1933.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8회 총회 회의록』. 대한예수교장로회, 1994.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9회 총회 회의록』. 대한예수교장로회, 1995.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3회 총회 회의록』. 대한예수교장로회, 1999.
- 「最近의 朝鮮治安狀況」. 『韓國獨立運動史』V. 國史編纂委員會, 1969.
- Grierson, Robert. *Episode on a Long Long Trail*. (Mimeograph).
- Pai, Minsoo. "The Rural Evangelistic Movement," *Korea Mission Field*. July, 1935.
- Pai Minso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imeograph).
- The Rev. Minsoo Pai, Letter to the Editor. *Minneapolis Star*. August, 23th, 1950.
- 고정휴. 「제2차 세계 대전기 재미 한인사회의 동향과 주미 외교위원부의 활동」, 『國史館論叢』 49, 1993.
- 노치준. 「배민수목사와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 『神學理解』 11집, 1993년, 307-337.
- 박노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서울: 한장사, 2005.
- 방기중. 「일제하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사상」, 제2회 배민수기념강좌 팸플렛 2.
- 方基中. 「일제하 裴敏洙의 基督教 農村運動論-長老教 農村運動의 政治 思想的 接近-」, 『東方學志』 99호, 1998.
- 方基中. 『裴敏洙의 農村 運動과 基督教思想』,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 方基中(編). 『福音主義와 基督教農村運動』,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裴敏洙. 『그 나라와 韓國農村』, 서울: 大韓예수교 長老會 宗教教育部, 1958.
- 최재건. 「배민수목의 미국에서의 활동」, 『신학논단』 제51집, 2008.3. 111-138.
-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1925-1937』,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ABSTRACT ]**

The Rev. Pai Minsoo's Life, Ideas, and  
Inheritance of His Legacy

Jai-Keun CHOI (Former Professor, Baekseok University)

This article will explore how the Rev. Pai Minsoo's life and his legacy are inherited. It can be an exemplary model for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particularly for the farming villages of Korea. The Rev. Pai loved God, loved farming villages, and loved labor. Therefore, we call it '*Samae*', which means the spirit of three loves.

Because of his involvemen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he was imprisoned twice during his Sungsil high school period, and during the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His patriotism is connected to his love of God. As a pastor he devoted his work for Korean farming village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he became the head of Farmers' Bank and continued to serve farming villages. He published journals, *Nongmin Saengwhal* (farmers' life) and *Sae Nongmin* (new farmers), and established a school for farmers.

When he passed away, his family donated his property to Yonsei university to continue his legacy. Although the wishes of his will and the conditions of the donation were not well executed in the first few years, more recently Yonsei built a memorial church and established bi-annual memorial lecture commemorating Rev. Pai. Furthermore, Yonsei selected a few MA and Ph. D students in the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and the Theology for Multi Farming Pastorate program in order for the legacy of Rev. Pai to

190 「대학과 선교」 제39집(2019)

continue.

**Key Words:** Rev. Pai Min-soo,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Sam.ae* Farmers' Technological Institute, Sprit of Three Loves, Sungsil Academy

논문접수일: 2019. 02. 10.

논문심사일: 2019. 03. 01.

게재확정일: 2019. 03. 02.